



모처럼의 산행과 함께하는 달기약수 백숙

경북 청송의 주왕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거대한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산세 때문에 험한 산으로 분류되고 했다. 그 험한 산세 때문에 예부터 석병산, 대둔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폭포와 함께 달기약수, 주산저수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글·사진 : 전기환

주왕산은 경북의 청송군과 영덕군 지역에 걸쳐져 있으며 1976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대전사를 비롯해 여러 폭포, 달기약수, 주산저수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고 또 모처럼 모았던 산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잘 어울린다. 특히 대전사에서 제3폭포에 이르는 등경코스는 거의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해 가족이 함께 산행하기에도 좋다. 이 코스는 계곡과 함께 폭포, 담, 그리고 기암괴석 등이 잘 조화를 이뤄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신비롭다.

물에 청학과 백학이 살 있다는 환산대, 앞으로 넘어질 듯 솟아오른 급수대, 주왕의 마장꾼이 격전을 기졌던 주왕암 등이 주요 볼거리다.

주요 등산코스 대전사에서 지해면 주왕암 망월대, 환산대, 제1폭포, 선녀봉, 주왕굴, 제2폭포 등에 이르는 약4km 정도

주왕산 산행의 시작은 대전사에서부터다. 매표소를 지나치면 바로 대전사다.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2년(67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당이다. 주왕의 아들 배천포공의 이름을 따서 대전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특이한 점은 임진왜란 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사명대사에게 보냈다는 천골사신이 흑각담 복벽이 보관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대전사에서 지해면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리고 계 피리를 걸고 한 번에 정도 올라가면 주왕암이 나타난다. 여기서 지해면으로 되돌아와 계곡 길을 따라 오르면 망월대, 급수대가 보인다. 이어 환산대가 나타나고 땀이여 새 폭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제 1폭포는 기암괴석 사이로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물줄기 보기엔 좋다. 웅장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다시 1km정도 걸어 오르면 우측으로 제2폭포 가는 길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약 200m 정도 걸어가면 제2폭포에 닿을 수 있다. 제2폭포는 제1폭포에 비해 소박한 멋이 있다.

다시 주등산로로 되돌아와 약 600m정도 오르면 제3폭포다. 제3폭포는 거대한 암반을 타고 흐르는 수량이 풍부한 2단 폭포로 주왕산의 폭포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고 할 수 있다. 목적으로 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전망대가 잘 갖추어져 있다. 제3폭포에서 곧장 직진해 들어가면 전가 없는 마을 대원마을에 닿게 된다.

산머리에 달기약수

청송 달기 약수는 4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일칼리식 약수다.

위장병, 빈혈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달기약수의 물맛은 설랑을 뺀 새이다. 맛 같다. 달기약수는 원탕, 허탕, 상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약수탕 주변으로 약수를 사용해 요리를 하는 식당들이 즐비해 먹을거리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예로부터 이곳의 약수로 푹 고아낸 토종닭 백숙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달기 약수 주변으로 수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산식당은 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이다.

▼ 청송 달기 약수



집을 지으면서 심은 등나무가 건물의 지붕을 감싸고 념을 정도. 토종닭을 달기 약수물에 황기, 당귀, 인삼 등 10가지 한약재와 마늘, 녹두,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낸다. 육질이 쫄득쫄득하면서 허물어지지 않아 먹기에 좋다.

국물에 찹쌀을 넣고 끓여낸 닭죽 역시 일품이다. 음료로 제공되는 생수 역시 달기약수물이다. 부산식당은 달기약수 원탕 바로 앞에 위치한다.

영화 촬영지 주산저수지

달기약수와 함께 다녀볼 수 있는 명소로는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인 주산저수지가 좋다.

천진한 동지승이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를 거쳐 장년기에 이르는 파란 많은 인생사를 그린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영화가 촬영된 경북 청송의 주왕산 주산저수지는 영화가 개봉된 후, 단번에 유명 관광지가 돼버렸다.

영화가 촬영된 사찰이 68평의 바지선 위에 세운 건물이라는 점도 독특했고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옮겨 다니며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 그 모습이 주위의 비경과 잘 어울려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촬영세트는 지난 6월 환경보호를 위해 철거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호수가 만들어진 것은 1720년 8월 조선조 숙종 46년의 일이다. 길이 100m, 넓이 50m에 이르는 호수는 주변의 산과 잘 어울려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이 호수는 준공이후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적이 없으며 호수 속에는 약 150여 년 된 능수버들, 왕버들 3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그 멋을 더한다. 7

▼ 청송 주왕산 대전사



실용정보

주왕산 온천관광호텔

지난 1995년 개관된 주왕산 온천관광호텔은 청송을 대표하는 숙박시설이다. 쾌적하고 편안한 객실과 온천사우나, 연회장, 한식당, 커피숍, 웨딩홀, 가라오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온천은 알카리성 중탄산 나트륨천으로 일반 온천수보다 알카리성이 월등히 높아 피부미용, 노화방지, 근육통, 신경통, 만성피부염, 알레르기성 각종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다. 온천욕과 함께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곳이다. 청송읍소재지에 위치한다. 호텔에서 달기약수까지는 약 10분, 주왕산국립공원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온천이용시간 05:30~20:30

이용요금 남녀 각 4,000원 (객실 이용시 50%할인)

주왕산 온천관광호텔 ☎054-874-7000

부산식당

토종닭백숙 25,000원(2인), 30,000원(3인). ☎054-873-2078



주왕산국립공원

어른 3,2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600원, 주차료 소형 4,000원, 버스 6,000원. 주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054-873-0014